

[발표 1]

문제음주자 부인의 사회적 지지 경험에 관한 연구¹⁾

이경욱(한림대 전임강사)

I. 문제제기

문제음주자 가정은 부부갈등과 가정폭력, 자녀와의 갈등 등 음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혜 · 엄예선 · 이은주 · 윤명숙, 1995; 김형희, 2005). 문제음주자 가족 중에서도 부인은 남편의 음주 문제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실질적 가장으로서 가족 문제 해결을 책임지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부인들은 불안과 적개심, 수치심, 슬픔, 자존감 저하, 결정의 어려움과 함께 남편의 경제적 활동의 중단이나 약화 및 술문제 해결과 관련한 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위축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고립, 예측불가능한 파괴적 생활의 연속, 가족역할의 와해를 주요한 어려움으로 지목하였다(강은실, 1995; 김형희, 2005, 장수미, 2001).

부인들은 가족이나 이웃,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한다. 일반적으로 생활상의 위기를 겪는 경우 가족을 비롯하여 친지나 이웃, 지역사회 등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수준을 완화시키고 개인의 안녕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양옥경외, 2002). 문제음주자 부인의 안녕과 적절한 대처를 돕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것이 문제음주자 부인 및 가족개입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형태의 지지만이 스트레스 영향을 완충시킨다고 하였다. 무엇이 적절한 지지인지는 맥락의존적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복잡하고 진행중인 상호작용이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변화하는 생태적 맥락 속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의 역동성과 상호작용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주관적 지지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음주자 부인이 어떤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며, 어떻게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사회적 지지 개념을 보다 정교화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문제음주자 부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개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직간접적으로 심리사회적 안녕에 영향을 주어 위

1) 본 연구는 박사학위논문(2006)의 면접 자료에 근거하였음.

기와 결과 사이를 중재하는 개념으로 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고려되고 있다(이원숙, 1992). 하지만 사회적 지지 개념은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초기의 지지 제공자 또는 제공 가능자의 존재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관점은 사회적 결속관계가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기능할 수 있으며, 단일한 차원이 아니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후 제공자 중심의 지지 개념에서 수혜자 중심의 지지 개념이 강조되는데, 지지 수혜자의 관점에 본 지지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는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계층이나 문제의 진행 과정 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지 및 지지로 경험하는 내용이 다른 것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지지는 객관적 실체와 주관적 평가간의 상호작용이며, 지지를 제공하는 행위와 지지를 제공받는 사람의 해석간의 역동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연결망이나 도움행위가 지지가 되는 특정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지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 행위를 둘러싼 상호작용에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나 환경 또는 관계의 정태적인 속성이라기보다는 개인과 환경간의 복잡한 상호작용과정(Vaux, 1988, 53)이라고 할 수 있다. Vaux는 기존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정태적이고, 양적연구 중심이었는데, 변수간의 관계 검증에 초점을 두는 횡단 연구로서는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는 개념요소간의 다면적 관계 검증이 어렵다고 비판한다. 국내에서도 사회적 지지 실태 및 영향을 분석한 다수의 실증적 연구(김연수, 2005; 김희순, 1988; 이경희, 1993; 임지영, 1996; 조인숙, 2002; 표선숙, 1995)가 있지만 사회적 지지 과정과 고유한 경험을 드러내는 연구는 많지 않고(우국희, 1997) 사회적 연결망을 동원하고 지지를 획득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문제음주자 부인의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대처전략이며, 사회적 지지가 낮은 배우자 집단이 역기능적 사고와 행동을 많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howmick, P 등, 2001). 하지만 문제음주자 부인의 사회적 지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송자, 1998; 김혜련, 1997; 한미라, 2003,). 부인들의 사회적 지지의 부족은 '고립'을 문제음주자 부인의 '증상'의 하나로 보는 논의(고병인, 2003; Cermak, T.L, 1986)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문제음주자 부인은 남편의 지속적 무시나 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의 가중 등으로 타인과의 비교의식이 심해지고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남의 도움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강은실, 1995). 부인들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는 가족친목모임(익명의 알코올중독자 가족모임 Al-Anon)에 대한 연구로 집중되어 있는데, 가족친목모임이 부인들의 문제 대처에 도움이 된다는데 일치된 결론을 보이고 있다.

문제음주에 대처하는 과정은 장기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며, 시간에 따라 문제양상과 지지기대 및 지지경험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에서 사회적 지지가 일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객체나 환경의 속성이 아니며 주체와 환경간의 역동적 상호작용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부인들의 사회적 지지 경험 또한 문제 음주 대처 전 과정의 맥락에서 검토해야 한다. 특히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한 여성들의 경험속에서 사회적 지지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문제 대처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심층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남편의 음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사회적 지지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사회적 지지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참여자 13명을 선정하였

다. 심층면접은 2005년 11월에서 2006년 6월까지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 1회 이상 실시하였는데 면접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3시간까지 소요되었으며 평균 면담시간은 약 110분이었다.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과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trauss와 Corbin의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ision method)으로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문제음주자 부인들이 남편의 문제음주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1)무엇이 도움이 되었는지. 2)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3)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 분석 결과 다음 세 가지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즉, '비심판적 존중'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줌', '적합한 관계를 선택하고 유지함'이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주관적으로 경험한 지지에 대한 주제와 하위 범주

주 제	하위 범주	개 념
비심판적 존중	심판하지 않고 인정해주기	그냥 들어주기/힘든 것을 알려주기/잘 해왔다고 인정해주기/잘 해낼 것이라고 믿어주기/희망을 보여주기/힘내라고 격려해주기
	문제음주를 치료가능한 질병으로 보기	질병으로 보기/치료법을 알게 됨/내 책임이 아님을 알게 됨
	개인의 선택을 인정해주기	내 생각을 인정해주기/내 판단이 옳다고 지지해주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됨	스스로 답을 찾기/마음 편안해지기/여유 생기기/다른 사람에게서 내 모습 보기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알게 됨	병으로 대응하기/분리하기/나를 챙기기/ 하루하루 살기
	희망과 짐을 함께 나눔	희망을 가지기/힘을 얻기/부담 적게 주기'
도움 되는 관계를 의식적으로 선택 하기	도움될만한 사람을 선택하기	가까이 지내는 사람/사정을 잘 아는 사람/알아야 할 사람
	하소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하소연하기/도움을 청하기
	제공된 도움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먼저 요청하지 않기/어쩔수 없이 받아들이기/거절하기/관계 유지하기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기	긍정적으로 보기/적극적으로 나누기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음주자 부인이 경험한 지지의 기준은 '비심판적 존중'이다. 참여자들은 제공자의 의도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미친 '효과' 또는 '결과'를 중심으로 '지지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 기준이 비심판적 존중이었다. 비심판적 존중은 비난하지 않고 공감해주는 정서적 지지에서부터 노력과 능력을 인정해주는 평가적 지지, 문제의 원인이 사람이 아니라 질병때문이라는 정보적 지지

를 포괄하는 것이다. 비심판적 존중을 바탕으로 한 물질적 지원 또한 지지로 인정하였다. 우국희(1997)의 연구에서 노인수발자가 '통제'를 지지경험을 핵심으로 이해한 것을 고려할 때 특정 집단 혹은 경험에 따라 지지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비심판적 존중의 중요성은 역설적으로 사회적 낙인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문제음주 뿐만 아니라 이혼 또한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부인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기 어렵고, 가족이나 친지 또한 적절한 대처규범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도움을 주기 어렵다. 이 때문에 도움을 기대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경우조차 양자간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긴장된 관계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 나타난 사회적 지지는 정태적 개념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문제대처과정에서 변화하였다. 먼저 참여자들의 기대가 변화하여 초기에는 주로 정서적 지지를 구하다가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는 정보적 지지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또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이 찾아나서고 그렇지 않은 관계를 거리를 두는 등 지지적 관계를 의식적으로 구성해나갔다. 이렇게 자신의 기대에 적합한 도움을 주는 관계를 선택하고,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형식상 유지하거나 단절하였다. 이는 Vaux(1988)가 지지망은 개발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한편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보다는 연결망의 상호연결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가 일면적이 아니라 다면적이기 때문에 '긴장된 지지'가 적지 않았다.

셋째, 사회적 지지망이 대처과정에서 변화하였는데, 가족이나 친구 등에서 가족자조모임이나 공식적 지지체계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가족이 비지시적 또는 비심판적 태도로 돕는 행동이 적다는 것은 Vaux(1988), Webber, R.등(2005)에서도 확인되었다. 특히 대다수 참여자들에게 가족자조모임은 노력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부여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하고, 책임을 나누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였다. 자조모임에 비하여 전문가의 공식적 원조 체계에 대한 언급은 제한적이었다. 병원이나 알코올 상담센터, 상담기관, 복지관 등은 주로 자조모임을 소개하는 관문 역할을 했다. Vaux(1988)는 생태적 모델에서 전문적 엘리트주의에 기반한 공식적 서비스의 보완물로 자연적 지지체계를 본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 공식적 서비스는 가족자조모임의 보완물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실천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공식적 원조체계로서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기대에 적합한 도움을 제공하는데 민감할 필요가 있다. 제공자 중심 또는 프로그램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의 관점을 강화하고, 일면적 지지에서 다면적 지지, 정태적 지지에서 역동적 지지 개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문제음주자 가족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원의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음주에 대한 낙인은 문제음주에 대한 적절히 대처하거나 도움에 대한 기대를 갖기 어렵게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폭력에 대한 새로운 대처를 합의해나가는 것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가족친목모임을 비롯한 자조모임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문제음주자가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대처를 요구하므로 전문가의 공식적 지원은 유사경험자의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지지를 보조하며 다양한 자원이 요구되는 통합적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